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

유경희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

최근에 이르러서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해외의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보의 이용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보보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이용이 훨씬 더 많을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한 통계를 갖고있지 않지만 이것은 컴퓨터의 정보처리능력이 외국어를 처리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본다. 비록 국내에서 생산된 정보이기는 해도 이것이 국내인이 보기쉽게 보다 외국인이 보기쉽게 영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이것이 신도불이 정보인가 의심이 간다. 외국어로 작성되는 국내정보도 국내정보라고 치더라도 외국정보의 이용률과 국내정보의 이용률이 과연 비교나 될지 의심스럽다.

여기서 데이터무역이란 것을 생각하여 볼수가 있다. 우리가 외국의 데이터를 들여오는데 얼마나 쓰며, 우리정보를 외국에 판매하는데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냐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돈을 주고 정보를 구입한다”는 습관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비싼 외화를 주고 외국에서 사오는 경우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면밀히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김치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듯이 데이터무역을 할때 외국어로 되어야 다소나마 판매가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어떻게던 깨어버려야 진정한 신도불이 정보가 되는게 아닌가 싶다. 이것은우리말의 세계화의 수준이 지극히 미약해서 업무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데이터무역의 적자는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의 회선이 아무리 국가간에 초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정보가 나가는 정보보다 많으면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보의 발신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보를 수신하기만 좋아하고 발

신하기를 꺼려한다면 이것은 이미 통신이 아니고 정보의 일방적인 제공에 불과하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어떻게 하면 공짜로 정보를 얻을수 있느냐가 지상과제였던 시절도 있었다.

전화만 하더라도 전화를 절대로 걸지않고 받기만 하겠다는 배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본다. 스스로의 정보마저 그 좋은 컴퓨터를 두고서도 스스로 입력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대부분이 미스김이나 미스박에게 부탁해서 입력하게 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버려버린다. 영화를 봐도 외국영화만 보고 국산영화는 돈주고는 안보는 사람도 많이 봤다. 대화를 할때에도 듣기만 하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남의 글은 읽어봐도 자기는 글을 별로 쓰지 않는다. 읽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마저 읽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고할 만큼 정보가 특정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바람직한 정보발신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정보발신을 위해서는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누가 공짜로 특정지역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는가? 지역정보화의 주역은 역시 자원봉사자에 의한 지역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정보센터가 전세계를 향한 “정보의 발신기지”가 되어야 한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코오베시. 이미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정보를 전세계를 향해서 발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칸사이 대지진이 일어났다. 매스컴에서는 항상 나쁜 정보만 흘린다. 통신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내용을 잘 모르던 인정이 많은 한국사람들은 물이 모자라는 줄 알고 대한항공에 물을 실어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로 엉뚱했다고.. 이것도 정보부족이었다. 그래서 코오베시청의 홍보과직원은 매일 매일 눈높이의 정보를 사진에 담아서 꾸준히 꾸준히 인터넷에 수록했다고 한다. 1개월간 60만건의 메일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이걸 사용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안나온걸 보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달갑지도 않은 물을 갖다주었겠지. 이렇게 태산과 같이 쌓이는 메일에 대한

회답을 쓰기 위해서 임시직원을 4명이나 고용했다고 한다. 정작 코오베시의 인터넷홈페이지는 당시만 해도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당당히 관청의 홈페이지가 되었고 지진보다 인터넷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더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재래식 통신은 모두 두절되었지만 기이하게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회선만큼은 살아남아서 이렇게 유명하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방을 전세계로 향하는 “정보발신기지”가 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게 되었고 이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처음부터 고임의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서는 안된다. 먼저 특정기관에서 스스로 “정보발신기지”가 되어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지에 맞추어서 자원봉사자가 꾸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지 않을까?

개인들의 정보처리능력은 탁월하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여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음 행동을 정하는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정보축적능력은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다. 이 말은

정보의 출력에만 관심이 있지 정보의 입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은 또한 정보를 이용만 하려고 하지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정보수신만 하고 발신을 하지 않는다. 정보이용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다. 정보의 수요와 공급에 반드시 차질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입고하지 않는데 출고만해서야 창고의 바닥이 금방 나게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의 정보세계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정보산업이 외국 정보산업의 하청업인것과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것이 나만의 잘못된 생각인가?

우리의 순수한 정보를 우리의 글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외국인도 우리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나 글을 배우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아닐까? **DC**

